

# 한국어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의한 접근

김윤신\*†  
서울대학교

Yoon-shin Kim. 2002. *The Change of Lexical Structure by Causativization in Korean: a generative lexicon approach*. *Language and Information* 6.2, 57-82. This study explores the lexical-semantic structure of derived causative verbs in Korean based on Pustejovsky(1995)'s Generative Lexicon Theory (GL). Morphological causative verbs are derived from their root stems by affixing '-i, -hi, -li, -gi' in Korean and the meanings of derived predicat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meanings of their root verbs. In particular, the change of the ARGUMENT STRUCTURE by morphological derivation leads to the change of the EVENT STRUCTURE. The ARGUMENT STRUCTURES of derived causative verbs include a causer argument, which is added to the ARGUMENT STRUCTURE of their root verbs by means of the causative derivation. Their EVENT STRUCTURE has a headed process related to a causer and its result is the event which their root verbs denote. This approach can also suggest that the (in)directness of causative is dependent on is the semantics of its root verb.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사동화, 생성어휘부이론, 사건구조, 논항구조, 특질구조, 상태동사, 동작동사, 달성동사, 완성동사

## 1. 서론

일반적으로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떠한 동작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어근동사나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파생사동동사를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이론에 근거하여 파생 전의 어근동사와 파생 후의 파생사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어떤 유사점을 갖는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파생사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가 갖는 일반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사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접사 '-이-, -히-, -리-, -기-' 등에 의하여 형태적으로 파생된 사동동사와 어미와 '하다, 시키다' 등과 같은 기능동사에 의한 통사적 구성으로 실현되는 사동구성이라는 사동의 두 가지

\*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E-mail: yoonshin69@dreamwiz.com

† 이 논문은 2001년 6월 한국언어정보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사동화에 의한 논항구조와 사건구조의 변화'를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본 논문에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논문의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

형태에 대한 통사적인 고찰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사동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은 대부분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하거나 표면형의 실현형태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접사의 부착을 통하여 형태론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어의 파생사동동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어휘로 실현되므로 두 개의 어휘가 연결되어 사동을 나타내는 통사적 사동과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양인석(1974) 등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반드시 그 형태상의 차이에 의해서 직접 사동행위와 간접 사동행위로 나누어진다는 Shibatani(1973)의 주장은 분명히 옳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동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통사론적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논의를 어휘부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사동동사가 주로 통사적으로 고찰되었기 때문에 파생 전의 어근동사와 파생사동동사 사이의 의미관계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파생된 사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는 어근동사의 어휘의미구조와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동동사의 직접성이나 간접성도 어근동사의 어휘의미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에서의 사동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3장에서는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어근동사의 상적부류에 따라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형태론적 파생에 의한 사동동사들이 나타내는 사동행위의 직·간접성을 논의할 것이다.

## 2. 생성어휘부이론에서의 사동(Causative)

Comrie(1981) 등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동(causation)은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동주(causer)가 참여하는 선행하는 원인사건과 그 영향을 받은 피사동주(causee)인 대상의 결과상태가 나타나는 후행하는 결과사건으로 구성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합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변화를 반영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언어표현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동과 관련된 어휘는 형태와 의미를 서로 공유하여 연관성을 보인다.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의 관점에서는 사동의 개념이 CAUSE라는 술어로 표상된다. 사동동사 'kill'의 의미표상(semantic representation)은 다음과 같다.

$$(1) [x [CAUSE [BECOME [NOT [ALIVE y]]]]]$$

(1)과 같은 사동의 의미표상은 어휘분해(lexical decomposition)를 받아들이는 어휘의미론에서는 사동을 표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이 구성하는 인과사건의 내부구조를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다. 따라서 사건구조의 하위구조, 즉 사건구조의 내부구조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질구조를 이용하여 사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a. 직접사동(DIRECT CAUSATION):

$$\left[ \text{QUALIA} = \left[ \begin{array}{l} \text{FORMAL} = \alpha_{\text{result}}(e_2, y) \\ \text{AGENTIVE} = \alpha_{\text{act}}(e_1, x, y) \end{array} \right] \right]$$

b. 간접사동(INDIRECT CAUSATION):

$$\left[ \text{QUALIA} = \left[ \begin{array}{l} \text{CONSTITUTIVE} = \text{part\_of}(z,y) \\ \text{FORMAL} = \alpha\_result(e_2,y) \\ \text{AGENTIVE} = \alpha\_act(e_1,x,z) \end{array} \right] \right]$$

c. 경험사동(EXPERIENCED CAUSATION):

$$\left[ \text{QUALIA} = \left[ \begin{array}{l} \text{FORMAL} = \alpha\_result(e_2,x) \\ \text{AGENTIVE} = \alpha\_act(e_1,x,...) \end{array} \right] \right]$$

직접사동은 행동주 즉 사동주가, 대상 즉 피사동주에 직접 영향을 주어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이고 간접사동은 'build'와 같이 대상의 일부에 영향을 주어 그 일부를 매개로 대상 전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sup>1</sup> 경험사동은 감각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술어가 나타낸다.

그러나 (3)의 'break'와 같이 통사적으로 목적어를 갖는 사동동사로 실현되는 동시에 목적어가 없는 비사동동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는 이와 같이 비대격 동사나 사동·기동교체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의 의미구조를 사동구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4)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3) a. The vase broke.

b. John broke the vase.

(4) a. 비사동의 'break': [y BECOME BROKEN]

b. 사동의 'break': [[x DO-SOMTHING] CAUSE [y BECOME BROKEN]]

이러한 사동분석(causative analysis)에서는 'break'가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두 개의 의미구조로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기존의 어휘의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나열의 방식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어휘로 표상하고 있다.

Pustejovsky(1995)도 (4)의 'break'와 같은 비대격동사의 경우를 사동분석에 서와 같이 동사의 교체현상과 연관된 다의어(polysemy) 현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사동개념과 관련된 어휘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의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5)와 같은 당연사동유형(default causative paradigm)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교체현상을 보이는 동사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의미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의미구조를 설정한

1. 이 경우의 간접사동은 한국어 사동이 갖는 두 가지 의미로 논의되는 직접사동이나 간접사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어의 사동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동주의 동작이 피사동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으로 구분하는 반면 Pustejovsky(1995)의 논의에서는 대상논항에 직접영향을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나누고 있다. 특히 간접사동이라는 용어는 주로 'build'와 같은 창조동사(creation verb)의 의미구조 기술에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개념과 Pustejovsky(1995)의 개념이 사동주의 영향의 직접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한국어의 간접사동은 흔히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피사동주의 행위를 유발하는 사동의 경우만을 다루는 반면 Pustejovsky(1995)의 간접사동은 인과관계를 반영하지만 문장의 표면구조에서 직접 목적어로 드러나는 논항이 사동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즉, 비대격 동사나 사동·기동 교체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하위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으로 상태변화를 나타내지만, 어떠한 하위사건도 중점을 갖지 않는 사건구조, 중점을 미명세(underspecification)한 사건구조를 갖는 것이다.

$$(5) \left[ \alpha \right. \\ \left. \begin{array}{l} \text{EVENTSTR} = \left[ \begin{array}{l} E_1 = e_1: \text{process} \\ E_2 = e_2: \text{state} \\ \text{RESTR} = <_{\alpha} \\ \text{HEAD} = \end{array} \right] \\ \\ \text{ARGSTR} = \left[ \begin{array}{l} \text{ARG}_1 = \text{[1]} \\ \text{ARG}_2 = \text{[2]} \end{array} \right] \\ \\ \text{QUALIA} = \left[ \begin{array}{l} \text{default\_causative-lcp} \\ \text{FORMAL} = \alpha.\text{result}(e_2, \text{[2]}) \\ \text{AGENTIVE} = \alpha.\text{act}(e_1, \text{[1],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또한 이러한 당연사동유형은 사동분석의 반례로 지적되는 비대격 동사로만 실현되는 한국어의 자동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논항만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에 관련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연사동유형은 변화를 내포하는 모든 동사의 어휘의미구조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동사의 논리적 다의성은 미명세된 중점을 통해서 제시한다.

생성어휘부이론에서는 당연사동유형을 사동개념의 기본틀로 설정하고 하위사건에 부여된 중점의 위치에 따라서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인 좌중점사건(left-headed event)으로, 달성동사(achievement verb)는 우중점사건(right-headed event)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사동·비대격 교체동사, 즉 사동·기동 교체동사는 무중점사건(headless event)으로 분류하여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생성어휘부이론에서 중점은 전체 사건구조를 구성하는 하위사건의 두드러짐(prominency)을 반영하는 기제로 나아가서 통사적 표면형과 의미구조의 연결장치로 작용한다.

그러면 무중점사건을 나타내는 'break'의 어휘의미구조와 통사적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자. Pustejovsky(1995)에 의하면 이러한 사동·기동 교체현상을 보이는 'break'와 같은 비대격 동사에 대하여 다음 (6)과 같은 당연사동유형의 어휘의미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6) \left[ \begin{array}{l} break \\ \\ \\ \\ \\ \end{array} \left[ \begin{array}{l} \\ \\ \\ \\ \\ \\ \\ \\ \\ \\ \\ \end{array} \right] \right]$$

$$\begin{array}{l} \text{EVENTSTR} = \\ \text{ARGSTR} = \\ \text{QUALIA} = \end{array} \left[ \begin{array}{l} E_1 = e_1: \text{process} \\ E_2 = e_2: \text{state} \\ \text{RESTR} = <_{\alpha} \\ \text{HEAD} = \\ \text{ARG}_1 = x \\ \text{ARG}_2 = y \\ \\ \text{default\_causative-lcp} \\ \text{FORMAL} = \text{break\_result}(e_2,y) \\ \text{AGENTIVE} = \text{break\_act}(e_1,x,y) \end{array} \right]$$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ink’의 사건구조에는 어떠한 하위사건에도 중점도 미명세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하위사건이나 중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점의 위치에 따라서 기동동사인 달성동사로 또는 사동동사인 완성동사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점 미명세를 통해서 사동·기동의 교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러한 어휘의미구조는 통사구조와 연결되어 자동사의 통사적 표면구조나 타동사의 통사적 표면구조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의 동사는 중점 미명세라는 기제를 통하여 동사의 다의성이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 (7) a.  $Q_i: R(e_1^*,x,y) \rightarrow x:\text{SUBJ}, y:\text{OBJ}$   
 $Q_j: P(e_2,y) \rightarrow$  가려짐(shadowed)
- b.  $Q_i: R(e_1,x,y) \rightarrow$  가려짐(shadowed)  
 $Q_j: P(e_2^*,y) \rightarrow y:\text{SUBJ}$

생성어휘부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사동의 구조를 언어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사동·기동의 교체현상을 보인다기 보다는 한 형태의 동사와 그 형태에 접사를 첨가하여 파생된 다른 형태의 동사가 개념상 교체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당연사동유형의 개념을 확대·수정하여 개념상 교체(alternation)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비대격 동사와 파생사동동사 등의 어휘의미구조의 기술에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 3. 사동화와 어휘의미구조의 변화

2장에서 밝힌 것처럼 생성어휘부이론에서 당연사동유형을 사동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동화의 결과로 나타난 동사의 사건구조도 복합사건구조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동주 논항이 논항구조에 나타나게 되고 사동동사의 사건구조에는 사동주 논항이 참여하는 원인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어근동사의 사건구조가 결과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한 어휘의 의미구조 안에 사건구조와 논항구조를 함께 표시하고 또 그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의 관계로부터 어휘가 나타내는 양상을 표시하는 특질구조를 함께 표시하고 있으므로 논항구조와 사건구조의 변화는 어휘의 의미구조에 함께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어근동사의 어휘의미구조, 특히 사건구조에 따라서 파생사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기로 한다. 어근동사의 사건구조는 크게 단일사건구조의 어근동사와 복합사건구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단일사건구조의 동사에는 상태동사<sup>2</sup>와 동작동사가 있고 복합사건구조의 동사에는 우중점 사건을 나타내는 완성동사와 좌중점 사건, 그리고 무중점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가 포함된다.

### 3.1 단일사건구조 어근동사의 사동화

단일사건구조의 어근동사가 복합사건구조인 사동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동주논항의 첨가와 함께 사동의 과정사건이 첨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일사건구조의 어근동사의 사동화는 사건구조의 틀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상태동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3.1.1 어근동사가 상태동사인 경우.** 상태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가 대상을 어근동사가 의미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파생된 사동동사는 사건이 완결(telic)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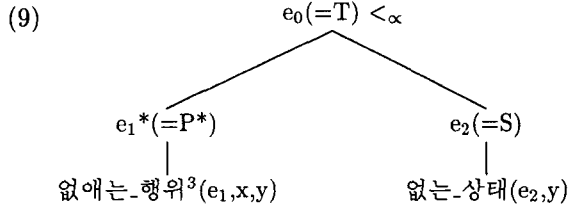
- (8) a. 범인은 일주일 동안에 증거를 없앴다.
- b. 범인은 일주일만에 증거를 없앴다.
- c. 범인이 증거를 거의 없앴다.
- d. 범인이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고 있다.
- e. 범인이 일주일 동안 증거를 없애고 있었다.
- f. 범인은 증거를 없앴다가 조사가 끝난 후에 내놓았다.

(8a), (8b)에 나타난 시간 부사어인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만에’는 부사는 모두 종결점을 갖는 내부 사건구조를 갖는 동사와만 함께 나타난다. (8a)와 (8b)에서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증거를 없애는 사건이 완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8c)는 사건이 완결되기 직전 또는 완결에 육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8d)는 없애는 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없애다’와 같은 사동동사는 과정사건이 두드러지는 사건구조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8e)에서는 ‘일주일 동안’과 같은 지속 부사구(durative adverbial)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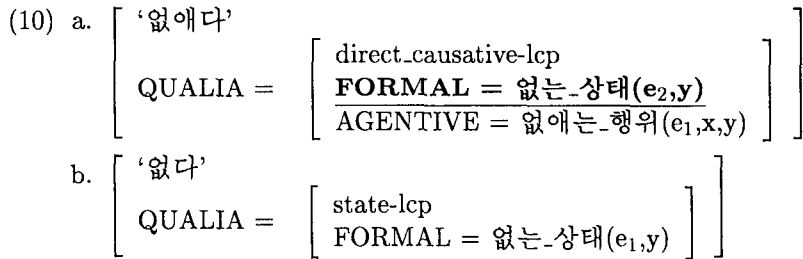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속시간 부사어는 동작동사와 사용될 경우에 그 동작의 지속되는 시간범위를 나타내지만 ‘없애다’와 같은 완성동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건전체가 어떤 시간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되거나 또는 사건의 완결이 그 시간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완성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가 선행하는 과정사건에 중점이 가는 동시에 사건의 완결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8f)에서와 같이 증거를 없애서 없앤 상태가 지속

2. 이 논문에서는 형용사라는 표현 대신에 ‘상태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건구조에 중점을 두어 술어를 기술하는 입장을 잘 나타내기 위함이다.

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없애는 사건’이 완결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것은 완성동사의 완결성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없애다’와 같은 사동동사의 사건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파생사동동사인 ‘없애다’와 어근동사 ‘없다’의 특질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10a)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용사인 상태동사 ‘없다’의 특질구조상의 형상역(FORMAL)이 파생사동동사인 ‘없애다’의 특질구조에서 형상역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없다’의 사건구조가 ‘없애다’의 사건구조에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하위사건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상태동사들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절대적인 상태로의 완결이라는 해석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없다’와 같은 상태동사는 논항의 상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논항의 절대적인 상태를 결과사건으로 취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반드시 형용사에서 파생된 사동동사가 상태동사가 나타내는 상태를 결과사건으로 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1) a. 길이 넓다.  
 b.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c.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다시 넓혔다.

(11b)는 (11a)를 함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11c)에서는 넓은 길을 넓힌다고 하면 이미 넓은 길을 절대적인 기준에서 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넓힌 후의 상

3. 이와 같은 술어의 사용이 순환 논리적 모순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술어가 의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사건을 특징짓는 상위언어(metelanguage)로 사용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위언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태는 그 전과 비교하여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넓다’와 같은 상태동사는 ‘없다’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넓다’와 같은 상태동사는 어떤 절대 상태라고 하기 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상대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근동사인 상태동사가 척도개념을 갖는 상태동사인 경우에는 그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가 나타내는 결과상태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있을 경우에만 확정적인 결과상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Hey et al.(1999)은 다음 (12)와 (13)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유한척도(bounded-scale)를 갖는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완결성을 갖지만 무한척도(unbounded-scale)를 갖는 술어는 완결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 대신 무한척도를 갖는 술어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차이값(difference value)을 표시할 경우에는 사건이 완결성을 갖게 된다.<sup>5</sup> 즉 척도에 대한 어근상태동사의 자질이 파생사동동사의 결과상태에 반영되어 완결성을 나타낸다.

- (12)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 b. Kim is lengthening the rope 5 inches.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5 inches.
- c. Kim lengthened the rope.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completely.
- (13) a. Kim is straightening the rope.  
↗ Kim has straightened the rope.
- b. Kim straightened the rope.  
= Kim has straightened the rope completely.

(12c)에서 볼 수 있듯이 ‘lengthen’이 도입하는 척도는 그 최대값(maximal value)이 없는 무한척도이므로 절대적인 결과상태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13a)와 같은 미완결의 해석을 갖는 함의관계를 보이며 반면에 차이값을 명시한 (12b)에서는 완결의 해석을 보인다. 반면에 (13)에서처럼 절대적인 최대값을 도입하는 ‘straighten’은 항상 완결의 해석을 갖는다.

이정민·김현주(2000)는 이와 같은 척도와 완결성에 대한 Hay et al.(1999)의 가설을 받아들여서 정도매김 형용사를 어근동사로 하는 ‘넓히다, 높이다’와 같은 파생사동동사는 각각의 형용사와 연관된 차원(dimension)과 관련된 무한척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와 같은 차원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그 언어학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차원과 관련된 명사가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 실현될 수 있다.

4. Hay et al.(1999)는 이러한 척도는 술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affected) 논항 내의 자질 변화정도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5. 어떤 술어의 완결성은 대화상의 함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화용론적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6. 이정민·김현주(2000)는 또한 유한척도를 갖는 동사(예 끊다, 식다, 녹다, 얼다, 차다, 비다, 굽다 등)는 본래적으로 완결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사들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들은 분명한 완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14) a. 울타리가 높다.
- b. 울타리의 높이가 높다.
- (15) a. 길이 넓다.
- b. 길의 너비가 넓다.

(14a)와 (15a)에서와 같이 ‘울타리가 높다’, 또는 ‘길이 넓다’는 (14b)와 (15b)와 같이 ‘울타리의 높이가 높다’나 ‘길의 너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원과 관련된 명사인 ‘높이’나 ‘너비’가 문장에 실현되어도 그 의미나 통사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높이다’는 차원과 관련된 무한척도를 도입하는 파생사동사이므로 변화 후의 상태가 어떤 절대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16)의 예들을 살펴보자.

- (16) a. 철수가 울타리를 높이고 있다.  
→ 철수가 울타리를 높였다.
- b. 철수가 울타리를 50센티 높이고 있다.  
✱ 철수가 울타리를 50센티 높였다.
- c. 철수가 울타리를 높였다.  
✱ 울타리가 높다.

(16a)는 ‘높이다’와 같은 술어가 마치 동작동사(activity)와 같이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을 보이는 경우이고 (16b)의 50센티와 같은 차이값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미완료 역설이 성립하지 않고 일반적인 완성동사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그렇지만 (16c)와 같은 함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철수가 울타리를 높였다’고 해서 그 울타리의 절대적인 상태가 높은 것은 아니다. ‘높다’라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차이값이 없는 경우에는 (17a)와 같이 완결점의 육박을 나타내는 ‘거의’와 공기할 수 없다. 차이값을 표현하는 부사구가 나타나는 (17b)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17) a. ??철수가 울타리를 거의 높였다.
- b. 철수가 울타리를 거의 50센티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이 결과사건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완결점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 (18) a. 철수가 한 시간 동안에 울타리를 높였다.
- b. 철수가 한 시간만에 울타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은 완결성을 완전히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결성이 척도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완성동사의 양상도 보인다.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a)는 울타리를 높이는 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19b)는 울타리를 높이는 과정의 양상을 수식하고 있다.

(19) a. 철수가 (계속해서) 울타리를 높이고 있다.

b. 철수가 열심히 울타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민·김현주(2000)는 Kennedy(1997)에 근거하여 어근의 상태동사인 형용사의 의미를 논항을 취하여 척도상의 정도값으로 투사하는 함수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사동동사의 완결성은 동사의 논항이 각각의 동사가 갖는 어휘의미구조에서 척도상의 특정한 값으로 투사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제한성(boundedness)의 함수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형용사는 척도를 나타내는 차원명사(dimension)를 당연논항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태의 변화를 겪는 대상 논항은 논항 자체라기보다는 그 논항이 술어를 통해 척도에 투사된 정도값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논항을 특질구조의 구성역(Constitutive)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의 (14)와 (15)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차원을 도입하는 당연논항들은 진논항(true argument)이 갖는 속성의 차원이며 그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가 진논항의 일부분인 것과 같이 'x(진논항)의 y(당연논항)'와 같은 명사구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당연논항을 특질구조상의 구성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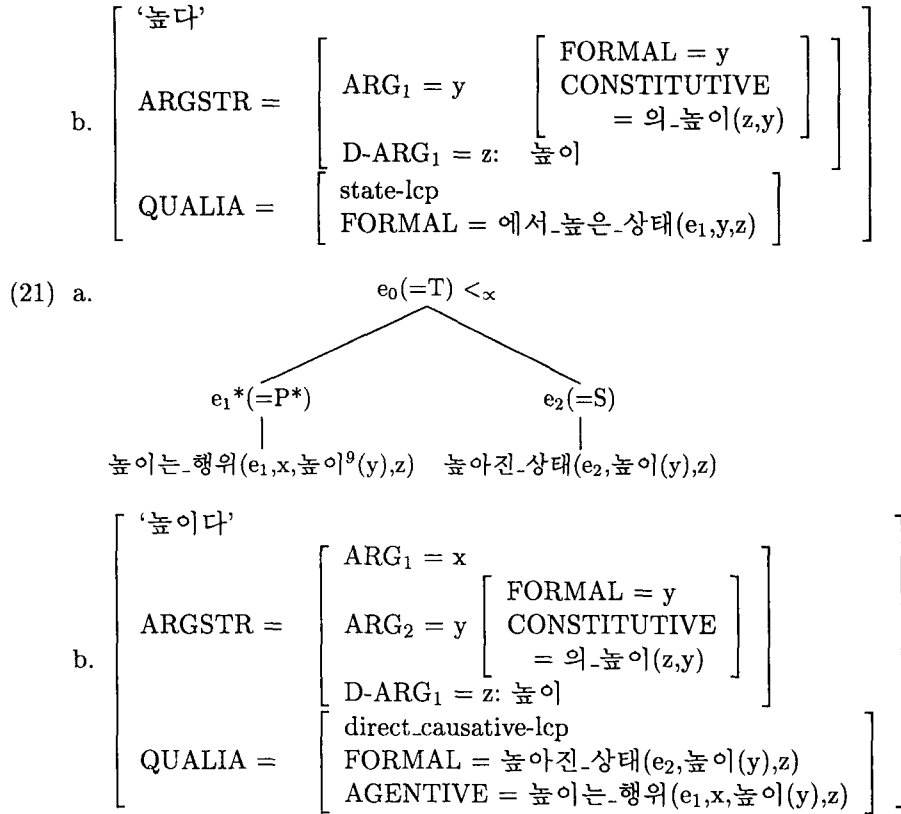
이정민·김현주(2000)에서 제시한 구조<sup>7</sup>를 참조하여 '높다'와 '높이다'의 사건 구조와 특질구조를 다음의 (20),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a.

$$\begin{array}{c} e \\ | \\ S \\ | \\ \text{에서-높은-상태}(e_1, y, z)^8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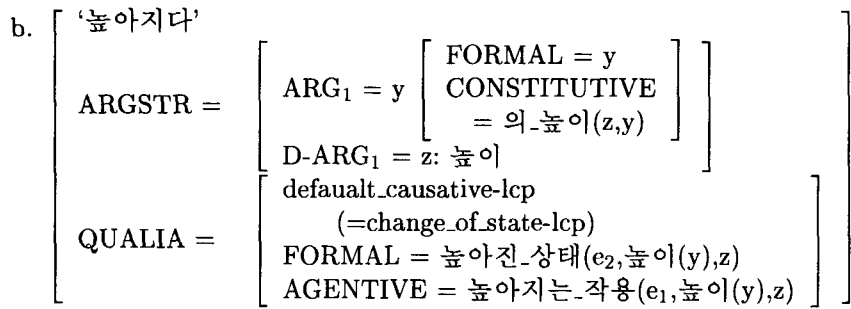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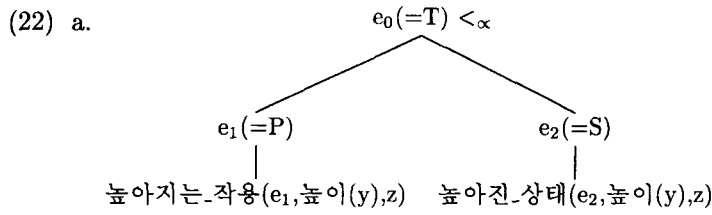
7. 김현주·이정민(2000)에서 제시한 구조는 하위사건을 전이로 설정한 구조로 (21)과 다르다. 즉 사건구조의 층위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정과 상태로 이루어진 복합사건 자체가 전이사건이므로 척도를 따라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동사들에 대해 전이과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자 한다.

8. 이 의미구조가 일반적인 '높다'의 의미구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높다'라는 상태동사의 의미를 '높은 상태'와 같이 순환적으로 정의한 탓이라고 판단된다. '높다'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높다'라는 술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생성어휘부 이론의 하나의 한계일 수는 있지만 술어로 사용된 '높다'는 일종의 상위언어(metalanguage)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은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높다'의 의미가 '높이'의 차원이 도입하는 척도 상의 값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



(20)과 (21)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없애다’와 ‘없다’의 관계와 달리 ‘높이다’는 ‘높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높다’를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는 정도값을 나타낼 수 있고 기동동사 ‘높아지다’와 ‘높이다’는 그 결과상태를 공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Y-S. Kim et al.(1999)에서는 ‘높다’와 같이 무한척도를 도입하는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기동동사는 변화의 결과가 차이값이라는 부가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확정된 완결점을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동동사들은 앞에 제시한 대로 무한한 척도를 근거로 일어나는 정도달성동사(degree achievement)이다. 정도달성동사는 일반적인 완성동사와 마찬가지로 과정과 결과상태가 연속되는 복합사건이고 후행하는 결과상태에 비중이 가게 된다. 선행하는 사건은 척도상의 값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또한 과정을 수식하는 부가어와의 결합하면 그 사건에 중점이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변화의 완결점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나타나면 척도 상의 값의 증가가 완결되고 그 상태가 최종의 상태로 결정된다. 즉 이때 후행하는 결과상태의 사건으로 그 중점이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중점의 위치에 따른 상적 특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도달성동사인 ‘높아지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9. 김현주·이정민(2000)에서는 이 부분을 ‘높다(y)’로 처리하고 있다. ‘높다(y)’보다는 ‘높이(y)’가 정도값을 반영하는 술어로는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기로 한다.



‘높아지다’의 의미구조를 ‘높이다’의 의미구조와 비교해 보면 우선 논항구조에서 논항수에 있어서 ‘높아지다’의 논항수가 ‘높이다’의 논항수 보다 하나 적다. 즉 행동주 논항이 원래 논항구조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구조에 있어서 결과상태가 동일하고 선행하는 사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없애다’의 경우와 달리 ‘높아지다’의 사건구조에는 중점이 명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3.2.에서 논의할 비대격동사인 ‘눅다’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눅이다’의 관계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되는 사동동사는 이와 같이 어근이 되는 상태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휘의미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를 각각 척도가 있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와 척도가 없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척도가 있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논항구조의 측면에서는 어근동사가 본래 갖고 있던 당연논항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질구조의 측면에서는 어근동사의 형상역이 파생사동동사의 형상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동사 자체가 대상 논항을 척도에 투사시키는 함수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척도가 없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그 특질구조에 있어서 어근동사의 형상역이 파생사동동사의 형상역과 일치한다. 두 유형의 동사들이 갖는 차이점은 어근동사의 논항구조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논항구조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유형의 파생사동동사는 모두 어근동사의 사건구조에 사동주인 논항이 참여하는 과정사건이 첨가되고 선행하는 과정사건이 중점을 갖는 [과정\*+상태]의 복합사건구조를 갖는 완성동사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사건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유형에 속하는 파생동사는 다음과 같다.

- (23) a. 척도가 있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낮추다(낮다)<sup>10</sup>, 넓히다(넓다), 높다(높이다), 좁히다(좁다), 크다(키우다), ...

10. 어근동사는 괄호 안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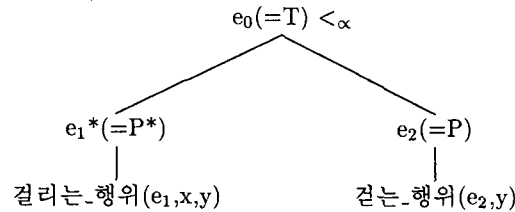
b. 척도가 없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없애다(없다), ...

**3.1.2 동작동사의 사동화.**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와 달리 동작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피사동주의 동작을 나타내는 과정을 결과사건으로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4) a. 철수가 한 시간 동안 아이를 걸렀다.
- b. 철수가 한 시간만에 아이를 걸렀다
- c. 철수가 (계속해서) 아이를 걸렀다.
- d. ?\*철수가 영희를 거의 걸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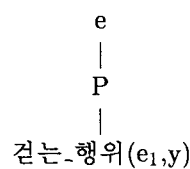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24a)는 철수가 아이를 걸리는 사건이 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의미하고 (24b)도 결과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두 번째 하위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 (24c)는 역시 과정의 계속을 의미하며 완결된 상태에로의 육박을 의미하는 (24d)는 좋지 못한 문장이다. 따라서 동작동사로부터 파생되는 사동동사들은 대상이 되는 피사동주의 동작이 시작되는 변화의 시점을 갖기는 하지만 사건이 완결되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건구조를 가질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사동동사들의 경우에도 사동의 과정사건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상적인 특징과 통사적 표면형에서 증명된다. 그러면 ‘걸다’와 ‘걸리다’의 의미구조는 살펴보자.

(25) a. ‘걸리다’



b. [ ‘걸리다’  
 QUALIA = [  $\begin{array}{l} \text{direct\_causative-lcp} \\ \text{FORMAL} = \text{걸는\_행위}(e_2,y) \\ \text{AGENTIVE} = \text{걸리는\_행위}(e_1,x,y) \end{array}$  ] ]

(26) a.



b. [ ‘걸다’  
 QUALIA = [  $\begin{array}{l} \text{activity-lcp} \\ \text{AGENTIVE} = \text{걸는\_행위}(e_1,y) \end{array}$  ] ]

‘걸리다’와 같은 동사는 (25a)와 같이 하위사건은 모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점은 선행하는 과정사건에 부여된다. 과정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걷다’의 사건구조에 사동의 사건이 첨가되어 ‘걸리다’의 사건은 복합사건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26b)의 특질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걷다’의 작인역이 ‘걸리다’의 형상역에 실현된다. ‘걷다’와 같은 동작동사에서 파생되는 사동동사는 어근동사인 동작동사의 사건을 사동동사의 결과사건인 하위사건으로 취하고 (25a)와 같은 [과정\*+과정]의 복합사건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사건구조의 변화를 갖는, 동작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다음과 같다.

- (27) 동작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걸리다(걷다), 굴리다(구르다), 울리다(울다), 웃기다(웃다), ...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정]의 사건구조는 Vendler(1967)가 제시한 네 가지 동사의 상적 부류에 제시된 동사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동동사는 Vendler(1967)가 제시한 상적부류의 동사들 가운데 완성동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완성동사는 어떤 결과상태로의 도달, 즉 사건의 완결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동작동사로부터 파생된 동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사건으로 상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인 동작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사건을 결과사건으로 도입한다. Pustejovsky(1995)에서도 복합사건구조의 사동동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정+상태]의 사건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Pustejovsky(1995)가 제시한 사동동사의 특질구조를 살펴보면 동사의 작인역에는 그 사건의 원인사건에 해당하는 과정과 관련된 술어가 나타나고 동사의 형상역은 결과상태와 관련된 술어가 나타난다. 그러나 형상역이 ‘어떤 영역(domain)에서 대상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것’이라는 기본 정의를 생각해 보면 형상역에 과정을 나타내는 사건이 오는 것이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걸리다’라는 동사를 다른 동사들과 구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걸리다’의 형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형상역에 나타나는 술어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 논항인 피사동주가 행동주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동동사가 간접 사동행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Shibatani and Chung(2000)에서 주장하는 동반사동(sociative causative)과 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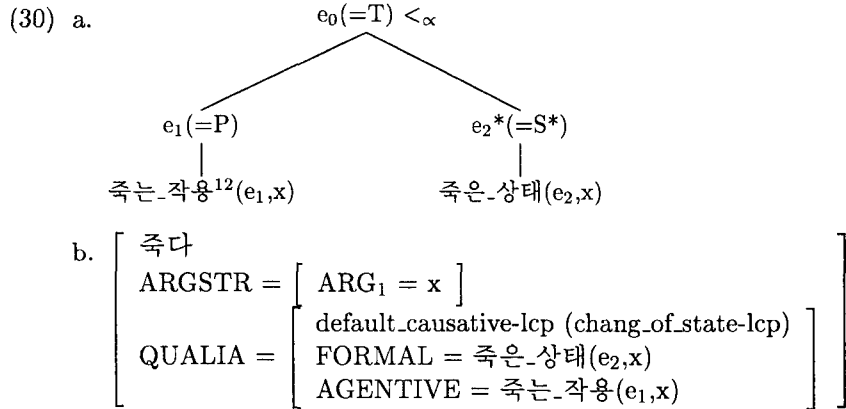
### 3.2 단일사건구조 어근동사의 사동화

**3.2.1 비대격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한국어의 사동동사 중에서 상당한 수가 비대격 동사인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그 의미상의 연관성도 매우 밀접하다. 다음의 대표적인 비대격 동사 ‘눅다’와 그 사동의 짝인 ‘눅이다’의 예를 살펴보자.

- (28) a. 땀별에 얼음이 눅았다.  
 b. 봄이 오자 땅이 눅고 쌓인 눈이 눅었다.  
 c. 3, 4월에는 얼어붙었던 도로가 눅는다.
- (29) a. 철수가 얼음을 눅였다.  
 b.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 무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모두 눅여버렸다.

c. 나는 난로와 위스키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다.

이준규·이정민(2000)은 (2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녹다’와 같은 비대격 동사가 녹이는 과정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작용만 논리적으로 필요할 뿐 직접적인 사동의 행동주가 언어실현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9)와 같이 사동동사 ‘녹이다’의 경우에는 행동주 논항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28)에서는 논리적으로 요구되는 원인이나 작용이 실현된다면 부가어로서만 실현되고 있다.<sup>11</sup> 그러므로 일반적인 비대격 달성동사의 어휘의미구조는 행동주가 있는 전형적인 사동구조가 아닌 당연사동유형에 근거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의미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대격 동사인 ‘죽다’의 어휘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대격 동사의 특질구조는 Haspelmath(1993)가 제시한 사동교체현상을 보이는 동사와 관련된 자동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즉, 과정을 겪는 동시에, 과정을 겪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주어인 대상(theme) 논항이다.

그런데 ‘녹다’는 다른 달성동사와 다른 상적인 특징을 보인다. 다음과 같이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후행사건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과정사건에도 상당한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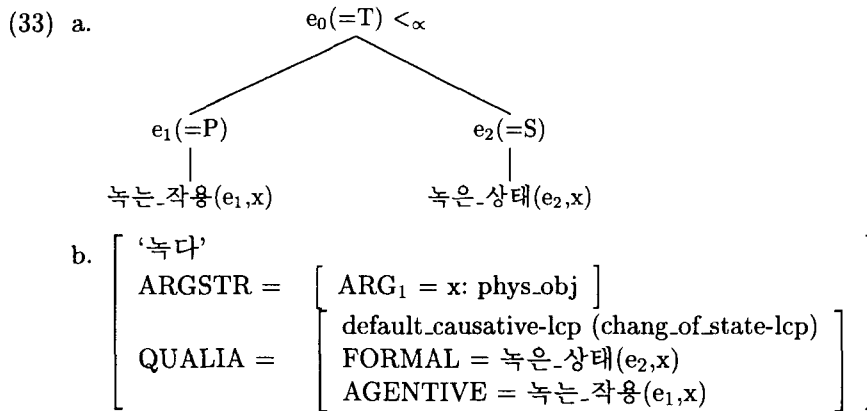
- (31) a. 한 시간 동안 얼음이 녹았다.  
 b. (계속해서) 얼음이 녹고 있다.  
 c. 얼음이 천천히 녹았다.  
 d. 얼음이 점점 녹았다.  
 e. 얼음이 녹고 있다. → 얼음이 녹았다.

11. Pustejovsky(1995)도 사동·기동의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탈리아의 비대격동사인 ‘morire’(die)와 ‘arrivare’(arrive)의 경우에 대해서 사동주가 있는 전형적인 사동구조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12.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작인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Pustejovsky(1995)는 행위와 작용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act’로 사용하고 있다.

(31)의 예문들은 모두 과정사건이 부각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나 ‘녹는 사건’의 대상인 얼음 자체가 얼음이라는 구체물이 사라질 때까지라는 사건의 종결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sup>13</sup> 다음과 같은 완결의 해석도 가능하다.

- (32) a. 한 시간만에 얼음이 녹았다.
- b. 얼음이 거의 녹았다.
- c. 얼음이 녹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부류의 달성동사들은 상태변화의 정도가 반영되는 정도달성동사이며 완성동사의 특징과 달성동사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어느 하위사건에도 확정된 중점을 부여할 수가 없으므로 중점이 미명세된 사건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중점이 미명세된 사건구조는 표면적 논항의 실현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사의 상적인 의미, 즉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에서 드러나는 다의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사건구조를 적용한 정도달성동사 ‘녹다’의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어근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논항구조에 사동주 논항을 첨가하는 것이 그 사동주 논항이 참여하는 원인과정을 별도의 하위사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어근동사의 사건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최초의 하위사건인 과정사건에 사동주 논항이 도입되어 작인역이 생성 어휘부이론에서 제시한 직접사동의 작인역이 된다. 어근동사와 파생사동동사가 동일한 사건구조의 틀을 공유하고 선행하는 사건만이 사동의 원인사건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결과사건은 모두 동일한 사건이 된다. 따라서 특질구조도 작인역은 교체되는 반면 형상역은 동일하다. 또한 다음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하위사건 가운데 중점이 과정사건에 주어지게 되는 완성동사가 된다. 이때는 어근동사의 사건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과정사건에 중점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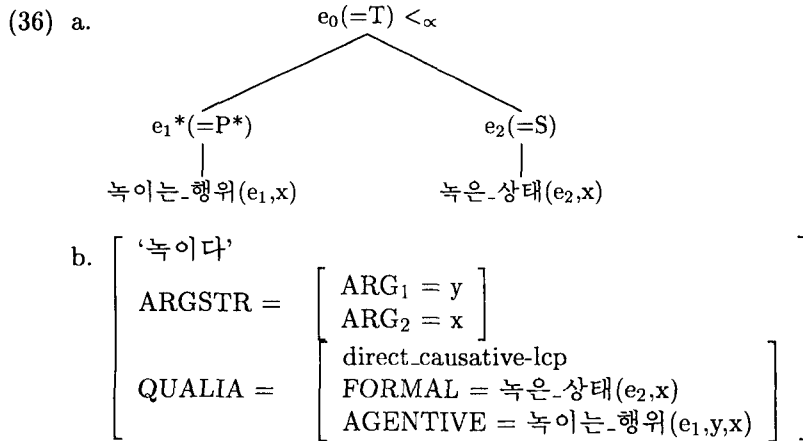
13. Tenny(1994)에서는 이와 같이 대상이 사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구획한다’(measure-out)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비대격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인 대상 논항이 사건을 ‘구획하고’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사건을 ‘구획한다’.

14. 이정민 외(2000)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를 정도완성동사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이러한 부류의 동사들이 갖는 완성동사와 달성동사의 중간적인 위치를 말해준다.



- (34) a. 철수가 30분 동안 얼음을 녹였다.
- b. 철수가 30분만에 얼음을 녹였다.
- c. 철수가 (계속해서) 얼음을 녹이고 있다.
- d. 철수가 얼음을 거의 녹였다.
- e. 철수가 힘들어서 얼음을 녹였다.
- (35) a. 철수가 30분 동안 바퀴벌레를 죽였다.
- b. 철수가 30분만에 바퀴벌레를 죽였다.
- c. 철수가 (계속해서) 바퀴벌레를 죽이고 있다.
- d. 철수가 바퀴벌레를 거의 죽였다.
- e. 철수가 힘들어서 바퀴벌레를 죽였다.

(34a)와 (35a)에서 볼 수 있듯이 ‘30분’이라는 지속시간 동안 일차적으로 전체사건이 반복되는 해석을 갖는다. 그런데 (34a)의 경우에는 중의적으로 과정의 계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녹다’와 같은 정도달성동사가 유한의 척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녹이다’가 나타내는 사건은 그 척도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4c)와 (35c)도 지속 부사구와 공기하는 예와 마찬가지로 (34c)는 전체사건의 반복과 과정의 계속이라는 중의적인 해석을 갖고 (35c)는 전체사건의 반복이라는 하나의 해석만을 갖는다. (34b)-(34e)와 (35b)-(35e)는 전형적인 완성동사의 해석을 보인다. 그런데 비대격 달성동사에서 파생된 사동동사는 그 행위가 직접 대상인 피사동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사동주는 어떤 다른 행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비대격 달성동사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의 사건구조와 의미구조를 ‘녹이다’를 예를 들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파생된 사동동사는 어근동사인 비대격 달성동사와 사건의 틀은 동일하고 어휘 의미구조에 있어서 결과상태와 관련된 형상역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사건과 연관된 작인역이 달라진다. 사동주 논항이 파생사동동사의 논항구조에 첨가되고 파생된 사동동사의 작인역에는 행동주 논항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동동사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중점은 선행하는 사동의 과정사건에 있다. Pustejovsky(1991)도 사동동사의 첨가된 논항은 술어의 작인역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지 사건구조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Van Hout(1998)도 형태가 동일하거나 형태론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체동사들의 경우 사건구조의 변화, 구체적으로 사건구조의 틀을 변화를 상정하지 않는다.<sup>15</sup> 따라서 한국어의 비대격동사의 사동화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파생사동동사는 다음과 같다.

- (37) 비대격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굳히다(굳다), 굽히다(굽다), 깨우다(깨다), 끓이다(끓다), 녹이다(녹다), 말리다(마르다), 비우다(비다), 식히다(식다), 썩히다(썩다), 앉히다(앉다), 익히다(익다), 죽이다(죽다), ...

**3.2.2 타동사인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앞에서 논의한 달성동사는 비대격 동사로 모두 자동사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달성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인 비대격 동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타동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달성동사의 특성을 보이는 동사들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주로 신체접촉이나 신체부착을 의미하는 동사들이다.

- (38) a. 영희가 동생을 안고 있다.  
 b. ?영희가 한 시간 동안 동생을 안았다.  
 c. 영희가 한 시간만에 동생을 안았다.  
 d. 영희가 거의 동생을 안았다.
- (39) a. 영희가 그 일을 맡고 있다.  
 b. 영희가 석 달 동안 그 일을 맡았다.  
 c. 영희가 석 달만에 그 일을 맡았다.  
 d. 영희가 거의 그 일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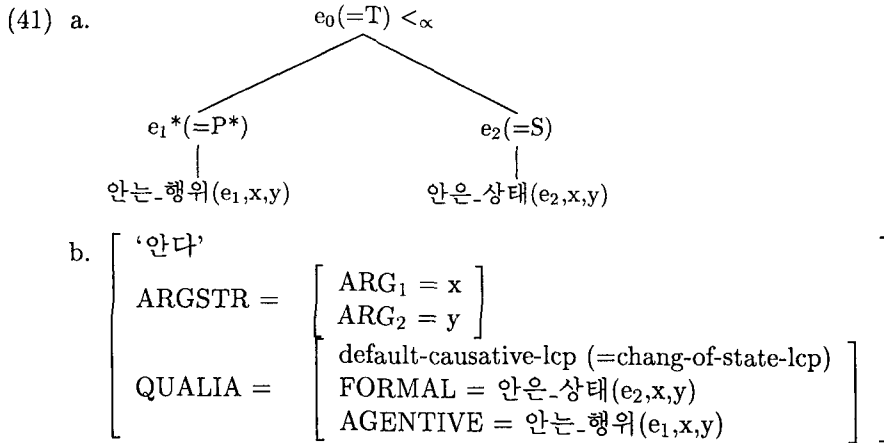
이러한 동사들은 과정보다 결과상태의 사건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38a)와 (39b)에서와 같이 ‘-고 있다’와 결합한 경우에도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38b)와 (39b)의 경우처럼 지속 부사구 ‘-동안’과 공기하는 경우에도 그 지속시간 만큼 상

15. 그러나 Van Hout(1998)는 상대동사나 동작동사의 사동화의 경우에도 형태가 동일하거나 형태론적 연관이 있을 경우 사건구조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는 우회적인 사동화의 경우에 한해서 사건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파생사동동사는 사동화의 형태에 따라서 그 우회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건구조의 변화가 있고 없음도 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성동사의 경우 결합이 불가능하거나 과정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다음과 같이 피동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 (40) a. 동생이 영희에게 안겼다.
- b. \*그 일이 영희에게 맡겼다.

(40a)는 피동문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사동동사의 피동적 해석을 갖는 경우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파생 피동동사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40b)는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달성동사의 결과상태는 (38a)나 (39a)의 경우와 같이 주어의 상태에 관한 것이므로 동사가 나타내는 변화는 행동주인 주어가 겪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휘의미구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구조를 갖는 달성동사들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의 경우에는 피사동주 논항의 행동주성이 앞에서 제시한 타동사인 동작동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약하다. 피사동주 논항은 거의 착점으로 구실을 하고 피사동주가 ‘안다’나 ‘맡다’의 동작을 중간단계로 실행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42) a. 엄마가 영희에게 동생을 안겼다.
- b. 상사가 영희에게 그 일을 맡겼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사동의 경우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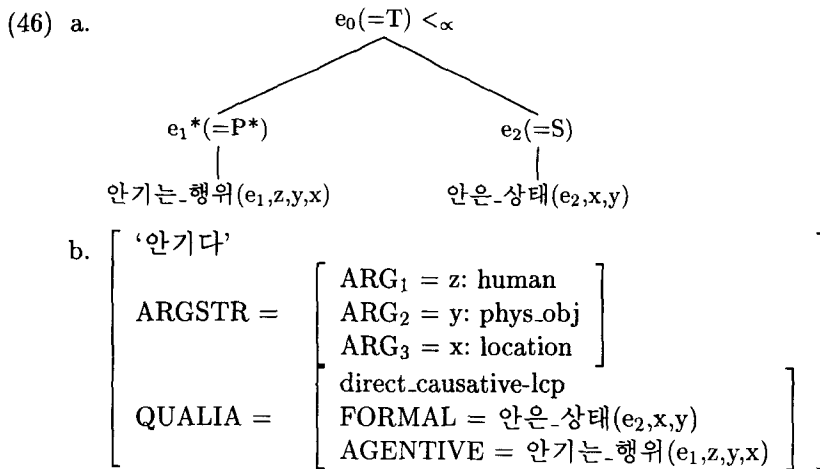
- (43) a. 엄마가 영희에게 동생을 안게 했다.
- b. 상사가 영희에게 그 일을 맡게 했다.

(43a)나 (43b)는 각각 (42a)나 (42b)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42)의 경우에는 사동주인 ‘엄마’나 ‘상사’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피사동주인 ‘영희’를 어떤 상태로 만

드는 것이다. 반면 (43)에서는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피사동주의 동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안기다’나 ‘맡기다’가 피사동주 논항의 위치에 어떤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42)의 ‘안기다’나 ‘맡기다’에서는 피사동주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 (44) a. 엄마가 영희의 품에 동생을 안겼다.
- a'. ?\*엄마가 영희에게 영희의 품에 동생을 안겼다.
- b. 철수는 전당포에 시계를 맡겼다.
- (45) a. \*엄마가 영희의 품에 동생을 안게 했다.
- b. \*철수는 전당포에 시계를 맡게 했다.

(44)의 ‘영희의 품’이나 ‘전당포’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45)와 같은 통사적 사동에 의한 문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영희에게’가 행동주가 아니기 때문에 (44a')는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동동사에 나타나는 피사동주는 비록 유정물일 경우라도 그 행동주성이 매우 낮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비대격 달성동사와 마찬가지로 어근동사의 사건구조에 또 다른 하위사건을 첨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46a)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우도 다른 파생사동동사의 경우와 사건구조의 중점이 선행하는 과정사건에 중점이 놓인다. 어근동사의 행동주 논항이 행동주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처소이고 파생사동동사에서 어근동사의 행동주에 해당하는 논항은 단순한 처격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사동행위가 중간단계의 사건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파생사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의 변화는 비대격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경우와 거의 같다. 이러한 유형의 사동동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7) 타동사인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 맡기다(맡다), 벗기다(벗다), 입히다(입다), 신기다(신다), 안기다(안다), 엮히다(엮다), ...

**3.2.3 완성동사와 사동화.** 일반적으로 완성동사는 중점이 있는 과정사건과 그에 따라오는 상태의 결과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건구조는 전형적인 사동의 구조이다. 그런데 이미 사동의 구조를 갖는 전형적인 완성동사는 중점을 옮기거나 사동사건을 첨가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완성동사인 창조동사(creation verb)는 형태론적 사동화가 불가능하다.

- (48) a. 철수가 집을 지었다.  
 b. \*영수가 철수에게 집을 지었다.  
 c. 영수가 철수에게 집을 짓게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먹다’와 같이 점층증가 대상을 논항으로 취하는 완성동사로부터는 사동동사가 파생될 수 있다.<sup>16</sup> 이때 파생되는 사동동사는 단순한 사동이 아닌 다른 행동주에게 어떤 동작을 할 것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시킴을 당하는 피사동주는 전체 사건의 대상인 동시에 결과 사건의 행동주가 된다. 다음을 살펴보자.

- (49) a. 엄마가 철수에게 밥 한 그릇을 먹였다.  
 b. 엄마가 철수를 밥 한 그릇을 먹였다.  
 c. \*엄마가 철수의 밥 한 그릇을 먹였다.  
 d. ?\*엄마가 철수의 입에 밥 한 그릇을 먹였다.

피사동주는 ‘-에게’나 ‘-한테’라는 격표지를 붙일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타동사인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와 달리 (49d)에서와 같이 행동주성이 없는 명사는 피사동주 논항이나 단순한 처소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달성동사의 경우처럼 피사동주의 동작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예들에서 ‘먹이다’의 상적 특징을 살펴보자.

- (50) a. 엄마가 철수에게 한 시간 동안 밥 한 그릇을 먹였다.  
 b. 엄마가 철수에게 한 시간만에 밥 한 그릇을 먹였다.

16. 많은 학자들이 ‘먹다’나 ‘읽다’와 같은 동사들은 전형적인 완성동사라기 보다는 흔히 동작동사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상적 부류에 대한 논의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동사 자체의 상적 특징을 정의하기 보다는 동사구의 특징에 따라서 상적 의미를 구별하고 있다. 즉 ‘eat an apple’과 ‘eat apples’를 제시하고 전자는 완성동사에 후자는 동작동사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과 하나를 먹는 사건의 반복을 의미하게 되면서 그 반복의 횟수가 불분명하므로 그 종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층증가의 대상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막연하나마 대상논항에 의해서 그 한계가 제시된다, 즉 구획된다(measure-out)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 자체가 반드시 동작과 그 동작으로 인한 결과상태를 동시에 함께 나타내므로 동질적인(homogeneous)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동작동사로 취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8)에 제시한 창조동사와 분명히 상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사구 차원에서 사건구조나 상의 차원을 논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먹다’와 같은 동사들이 갖는 어휘차원에서의 의미구조를 논의하고자 하므로 동사구의 범위는 잠시 미루어두기로 한다.

17. ‘-에게’나 ‘-한테’를 행동주의 표지로 보는 것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를’과 대조해 볼 때 ‘-를’로 실현되는 경우보다 행동주성이 더욱 강한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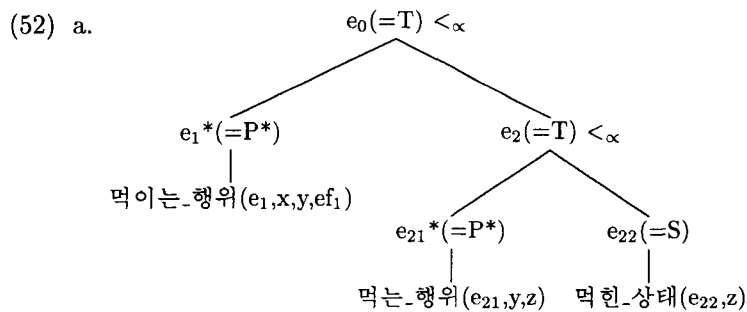
- c. 엄마가 (계속해서) 철수에게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있다
- d. 엄마가 철수에게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였다.

(50a)에서는 사동의 동작이 두드러진 해석이 나타나고 (50b)에서는 철수가 밥을 먹는 사건이 모두 완료되어서 대상인 밥이 남지 않은 상태가 한 시간만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50c)와 같이 먹이는 사동동작의 과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0d)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달성동사와 같이 완결점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다’와 같은 완결점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부사와 함께 나타날 경우에만 ‘거의’와 공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사동의 과정을 수식하는 수식어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51) a. 엄마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밥을 먹였다.
- b. 엄마가 철수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였다.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비대격 달성동사나 타동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사동주 논항이 외부논항으로 존재하는 사동구조를 갖고 결과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사동주의 행위를 중간단계의 사건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49a)와 (49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사동주는 사동동사의 대상인 동시에 사동행위의 결과사건의 행동주가 되고 문장의 구조상 사동동사 ‘먹이다’는 대상인 피사동주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시에 피사동주가 행하는 동사구를 동시에 논항으로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처럼 사건구조의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행하는 사건만을 사동화할 수 없다.

다음 (52)에 제시된 의미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동의 원인사건인, 중점을 갖는 선행하는 별도의 과정사건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특질구조에서는 작인역에 사동주 논항과 행동주 논항, 그리고 피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구인 사건함수(event function)이 나타나고 형상역에는 후행하는 결과사건인 사건함수 자체가 나타난다.<sup>18</sup>



18. 이와 같은 구조는 Pustejovsky(1995)가 주장하는 ‘begin’과 같은 양상사동동사(modal causative)와 유사한 의미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	[ ‘먹이다’	]
EVENTSTR =	[	E <sub>1</sub> = e <sub>1</sub> : process E <sub>2</sub> = e <sub>2</sub> : event <sup>19</sup> RESTR = <α HEAD = e <sub>1</sub>
ARGSTR =	[	ARG <sub>1</sub> = x: human ARG <sub>2</sub> = y: human ARG <sub>3</sub> = ef <sub>1</sub> = <y, <e <sub>2</sub> , t>>
QUALIA =	[	direct_causative-lcp FORMAL = P(e <sub>2</sub> , y, z) AGENTIVE = 계_하는_행위(e <sub>1</sub> , x, y, ef <sub>1</sub> )

(52a)에서 ‘먹이다’의 사건구조에서 최초의 하위사건인 e<sub>1</sub>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그 영향에 의해 복합사건인 두 번째 하위사건 e<sub>2</sub>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중점은 첫 번째 하위사건과 복합사건인 두 번째 하위사건의 최초의 사건에 놓이게 되고 이와 관련된 특질구조와 관련된 논항이 모두 통사적으로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사동주 논항과 피사동주 논항, 그리고 대상 논항이 실현되는데 피사동주 논항은 형상역과 작인역에 모두 나타난다.

4. 사동의 직·간접성

지금까지 제시한 파생사동동사는 사동동사에서는 사동주가 피사동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위를 가해서 어떤 결과를 직접 이끌어 내거나 또는 사동주가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직접 이끌어 내지는 않지만 그 행위의 영향으로 피사동주가 피사동의 사건에서 행동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직접 사동행위를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는 간접 사동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태동사나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직접 사동행위만 나타내는 반면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직접 사동행위와 간접 사동행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 동사는 직접 사동행위의 의미도 가능하지만 간접 사동행위의 해석을 우세하게 나타낸다. 즉, 파생사동동사가 나타내는 사동행위의 직·간접성은 형태를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동동사의 어근동사가 갖는 어휘의미구조에 근거한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동(1975)이 주장한 것처럼 동사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Yang-Shibatani의 논쟁은 결국 동사의 내부 의미구조에 대한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동의 직·간접성의 정도 차이는 다음의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사동주에 대한 격조사의 실현에 반영된다.

(53) a. 철수가 증거를 없었다.

b. \*철수가 증거에게 없었다.

19. (52b)에서는 ‘먹이다’의 두번째 하위 사건은 사건(event)으로 나타냈다. (52b)와 같은 구조를 일단 제시한 후라 논지를 진행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두번째 하위사건의 내부 구조를 AVM에서는 자세히 나타내지 않았다.

- c. \*철수가 증거가 없었다.
- (54) a. 영희가 얼음을 녹였다.  
 b. \*영희가 얼음에게 녹였다.  
 c. \*영희가 얼음이 녹였다.
- (55) a. 엄마가 영희에게 동생을 안겼다.  
 b. 엄마가 영희의 품에 동생을 안겼다.  
 c. ?엄마가 영희를 동생을 안겼다.  
 d. ?엄마가 영희의 품을 동생을 안겼다.  
 e. \*엄마가 영희가 동생을 안겼다.
- (56) a. 영희가 아가를 걸렸다.  
 b. \*영희가 아가에게 걸렸다.  
 c. \*영희가 아가가 걸렸다.  
 d. 영희가 아가에게 걸음을 걸렸다.
- (57) a. 엄마가 철수에게 밥 한 그릇을 먹였다.  
 b. 엄마가 철수를 밥 한 그릇을 먹였다.  
 c. \*엄마가 철수가 밥 한 그릇을 먹였다.

(53)은 상태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의 예이고 (54)와 (55)는 달성동사로부터 파생된 사동동사이다. 그리고 (56)은 동작동사로부터, (57)은 완성동사로부터 각각 파생된 사동동사이다. (53)과 (54)에서는 대상 논항이 ‘-를’로만 실현될 뿐이다. (55)에서는 ‘-에게’로 실현되는 논항이 행동주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처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55b)의 경우에는 ‘-에’라는 처격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사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56b)의 사동동사가 완성동사에서 파생된 (57b)의 사동동사와 달리 행동주성을 갖는 사동주가 ‘-에게’로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56d)의 경우를 살펴보면 ‘걷다’의 동족 목적어 ‘걸음’이 목적어로 나타나면 행동주성을 갖는 ‘-에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파생사동동사의 형상역이 어근동사의 작인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 (57)의 경우에는 ‘-를’은 물론이고 행동주성의 ‘-에게’ 논항도 모두 실현된다. (53)-(57)에서는 피사동주가 모두 ‘-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주격조사 ‘-가’는 모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에게’의 실현여부가 사동동사의 간접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생사동동사의 직·간접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58) 파생사동동사의 직·간접성과 피사동주 논항의 조사실현여부



직·간접성의 정도 어근동사의 형태 피사동주의 조사실현	직접 사동행위      간접 사동행위 ←----->		
	상태동사· 달성동사	동작동사	완성동사
‘-에게’(행동주성)	X	X/O	O
‘-가’	X	X	X

5. 결론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화에 의한 파생사동동사의 어휘의미구조는 어근동사의 의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어휘체계가 형태론적 파생에 의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어의 사동연구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동의 직접성과 간접성 여부도 어근동사의 내부 의미구조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국어의 파생사동동사와 함께 파생피동동사의 체계는 타동성의 교체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앞에서 제시한 달성동사의 사동화는 사동·기동 교체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사의 사건구조를 이원적으로 분석하는 생성어휘부의 방식은 불연속체인 사건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연구에서 내부의 하위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하다, 시키다’와 같은 사동을 실현하는 기능동사의 의미기술과 또한 사동 기능동사와 동사의 결합양상과 제약, 그리고 의미해석의 생성적 기제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김윤신. 2000. “한국어 동사파생과 사건구조”, 2000년 한국언어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김윤신. 2001a.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윤신. 2001b. “사동화에 의한 논항구조와 사건구조의 변화”, 한국언어정보학회 2001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언어정보학회, 25-58.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인지과학11-1, 25-32.  
 김윤신, 이정민, 남승호. 2000. “한국어 기동동사의 사건구조”, 2000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인지과학회, 101-107.  
 김현주, 이정민. 2000. “한국어 술어의 상적 완결성과 어휘의미구조”, 언어정보학회.  
 양인석.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연구 10-1.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제 203호, 165-188.  
 이기동.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한국문화사.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1998.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인지과학 9-3, 19-33.  
 이정민, 김영화, 강범모, 남승호, 이하규.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이준규, 이정민. 2000.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사건구조”, 2000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인지과학회, 108-113.  
 장석진. 1973. “시상의 양상”, 어학연구 9-2, 58-72.  
 홍재성 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owty, Davi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rimshaw, Jane.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spelmath, Martin. 1993. More on the Typology of Inchoative/Causative Verb Alternatings, in Comrie, Bernard and Maria Polinsky (eds.), *Causatives and Transitivity*, John Benjamin Publishing Co., 87-120.
- Hay, Jen. 1998. The Non-Uniformity of Degree Achievements, *72nd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NY.
- Hay, Jen, Chris Kennedy and Beth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SALT* 9.
- Kim, Yoon-shin, Chungmin Lee,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9. The change-of-state verbs derived from adjectives in Korean, in *the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Waseda University, Tokyo, 135-140.
- Lee, Chungmin,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Boas, J. and P. Buitelaar (eds.), *Proceedings of ESSLLI-98 (Tenth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Workshop: Lexical Semantics in Context- Corpus, Inference and Discourse*, 1-15.
- Levin, Beth and Malka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erlmutter, David M..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Berkely Linguistic Society* 4, 157-189.
-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Levin, B. and S. Pinker (eds.)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Pustejovsky, James. (ed.). 1995.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hibatani, Masayoshi. 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281-298.
- Shibatani, Masayoshi. 1977.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a Conspectus, in Shibatani, Masayoshi (ed.), *Syntax and Semantics Vol. 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Academic Press, Inc., 1-40.
- Shibatani, Masayoshi and Sung Yeo Chung. 2000. Japanese and Korean Causatives Revised, in *The 10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UCLA.
- Van Hout, Angeliek. 1998. *Event Semantics of Verb Frame Alternations: A Case Study of Dutch and its Acquisition*, Garland Publishing, Inc..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02년 11월 6일  
 게재결정: 2002년 12월 15일